

주제: 밤의 주거

연사: 보 브래디 (Bo Brady)

날짜: 2023년 10월 29일

논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소개: 상승의 시편.

보라

밤에 여호와와 함께 있는 여호와와 모든 종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주님

시온에서 축복하소서! (시편 134 NKJV)

#### 1. 보라, 여호와와 모든 종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는 성경에서 '보라'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알고, 경험하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네온 화살표입니다. 이 구절에서 '보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라는 말을 듣는 이유는 그것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른 예배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24시간 예배를 하도록 제사장들이 임명되었으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묘지 교대를보세요.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침묵 속에서 서서 찬양하는 손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들이 깨어나기 전, 세상이 밝아지기 전,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들을 봐.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다(계 1:6)

(공항 – 해 뜨기 전 Awake before the sun: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것도 단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우리의 순례길에서 우리는 밤의 계절을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낮이 밤으로 바뀔 때 우리 마음과 손으로 어디로 갈지 결정하시는 분.

우리는 다음을 만난다:

1. 우주의 어둠: 우주 전투. 온 세상은 균등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권력, 정국 등
2. 상황적 어둠: 권력의 줄. 악한 계획을 가진 악한 사람들. 전염병. 경제 위기. 정치적 불안 “전쟁과 전쟁의 소문”.

3. 개인적 어둠: 관계 붕괴, 정서적 불안

4. 그저 '낮이 아닌' 밤. 그것은 자연의 리듬에 있습니다. 낮이 가고, 밤이 온다. 나뭇 필요는 없지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친구들! 하나님은 새벽 3시에도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새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 아무도 보고 있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을 때에도. 당신의 목소리만이 당신에게 들리더라도. 팔이 피곤하고 믿음이 희미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도 밤이 되면 주님을 찬양하세요.

**STAND** = 서다, 머무르다, 견디다, 입장을 취하다 **1a)** ( 칼 ) **1a1)** 일어서다, 입장을 취하다, 서 있는 자세로 서다, 앞으로 나아가다, 입장을 취하다, 자신을 나타내다, 주의를 기울이다, 종이 되다 **1a2)** 가만히 서 있다, (움직이거나 행동하는 것을) 멈추다, 멈추다 **1a3)** 지체하다, 지체하다, 머물다, 계속하다, 머무르다, 견디다, 지속하다, 굳건해지다

상황이 정말 어두울 때,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둠이 많은 공간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 그러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 빛이신 분에게서 받은 빛 안에 서십시오.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능력 안에 서십시오. 그분께 사랑받는 신분으로 서십시오. 귀하의 계시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다. 기도하다. 언덕 위에 있는 도시가 되십시오.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빛이 되십시오. 빛 속에 거하면 사람들이 당신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당신의 뿌리를 깊이 뿌리고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분께 어두운 세상에서 당신의 빛이 되어 달라고, 어두운 세상을 위한 빛으로 당신을 채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빛을 소유합니다. 나는 우리 주변의 세상에 불을 던질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둠과 싸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빛의 존재 자체가 어둠이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나의 임무는 특히 어두운 계절에 그분의 빛이 내 마음과 가정을 가득 채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빛을 법제화하는 것도, 빛이 아니라고 남을 비난하는 것도, 어두운 집을 손가락질하는 것도 아니다. 내 직업은 어둠과 차가운 세상에 따뜻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밤에 사역하는 방법이다. 빛 가운데 생활함으로써.

2. 손을 들어보세요

성소에서 두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주님  
시온에서 축복하소서!

와서 주님을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짙은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음을 발견했을 때의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좋은 단계입니다. 주님을 축복하십시오. 히브리어로 '축복'이라는 단어에는 겸손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절하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위치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

소비하고, 우리를 드로잉 보드로 다시 되돌리도록 하기 위해... 그분의 뜻으로만 돌아가십시오 . 내가 꿈꾸고 바라는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그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 것입니다. 태워 버려라 . 내 마음의 어둠 속에 당신의 빛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계획을 의심하는 곳을 밝혀 주소서.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첫 번째 단계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빛을 우리 자신의 거처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것은 촛불을 켜고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이며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은 밤새도록 온 민족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울었고, 예배했고, 회개했고,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위해 기뻐했습니다. 2주 전 Shelter에서 Alisa는 “내가 주님을 구하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라는 노래를 인도하며 엄청난 제의를 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 노래를 부를 믿음이 없다면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노래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노래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밤 한가운데 서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손을 들어 올려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암울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한 시간만 나와 함께 있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의 어둠 속에서 나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야기. *Standing in the night* - 2015년 7월 9일자 내 블로그 의 이 페이지 :

어젯밤 우리는 또 긴 밤을 보냈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어제 친구가 나에게 보낸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아침에 가장 먼저 그것을 읽었고 즉시 잠이 부족한 눈물과 예배의 웅덩이에 녹아 버렸습니다. 나는 이전에 이 각도에서 이 구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젯밤 나는 이 말을 여러 번 나 자신에게 인용했고,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내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와 집에서 섬기는 여호와와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추신. 134

그리고 여기에 모든 새로운 엄마와 ALS 아내, 지친 간병인, 침대 자녀의 부모, 야간 근무를 한 모든 사람을 위해 쓴 내 의역이 있습니다.

저들을 봐! 모든 것이 어두울 때에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그들은 별소리에 맞춰 아기들을 흔들며 줍니다.

그들은 달빛에 의해 마음과 몸이 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별소리가 울리면 아마도 잠이 끝났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새벽 2시에 전화를 받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안고 있었지만 더 이상 손이 달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침대에서 기도합니다.  
위로를 포기하면 그들의 희생은 성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이제 지친 자여, 당신의 애정을 주님께로 돌리십시오. 너무 짝 찬 두 손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다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조각들을 하나로 묶을 때  
그분은 당신을 붙잡아 안아주실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물을 보시고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시편 **134**편

응답 :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전 3시? 대낮? 오늘날 당신의 삶에 있는 빛의 상태는  
어떨습니까?